



오늘의 날씨 | 맑음 | 기온 -3℃/5℃

2017년 11월 23일 수요일 (음력 6월 24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934호



기독교인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3가지

“목회자도 한계가 있는 인간”

목회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며 주님이 맡기신 양 무리를 열심히 돌볼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지만, 목회자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난 18일 크리스천투데이 칼럼니스트 제이미 카칠라는 ‘기독교인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3가지’라는 기고 글을 통해 ‘목회자는 모두에게 축복이며,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3가지이다.

1. 목회자는 당신이 듣고 싶은 내용만 말해준다.

목회자들의 직무 중 일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의 직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바로 잡는 것 또한 의미한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거나 아첨하는 말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체득할 때까지 동일한 권면을 반복하고 반복할지 모른다. 비록 그것이 교장이 난 레코드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규율이나 교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씀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는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찌른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들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4:12)

예수님은 악인을 부르시고 꾸짖으시며,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징계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존중한 반면, 자기 자신 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한다.

2. 목회자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또 다른 흔한

실수이다. 우리는 목회자들이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감동이 필요한 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물음과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손가락으로 떠서 먹여주기를 바란다. 게다가 자신의 인생에 모든 면을 목회자가 인도해주기를 바라며 목회자를 찾는다.

좋은 목회자는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그들도 단지 인간일 뿐이다. 목회자는 신이 아니며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베레아 교우들처럼 해보자. 그들은 설교자가 말한 것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성경을 찾았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리로”(행17:11)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아야 한다.

3. 목회자는 완벽하다

이것이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이다. 목회자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모

든 것을 알지 못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목회자들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목회자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모든 불의를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목회자들에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 그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쉼을 잘 가져야 한다.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이어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항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우리가 겸손하고 복종의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지만 한다면 우리를 결코 실증내지 않을 것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딤후5:17)

장소피아 기자

“주일에는 아이들 쉬게 하자”

심어있는교육 기독교운동이 22일 감리교회관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아영양단축 법제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목회자 포럼을 열었다. 사진은 기자회견 중 NCCK 총무 이홍정 목사(맨 오른쪽)가 연대 지지발언을 하는 모습.

조은식 기자

北, 20여개 사이버 공작 조직 7천 여명

하루 150만 건 해킹시도

북한은 현재 20여개 사이버 공작 조직을 통해 모두 7천여 명의 사이버 요원들이 하루 150만 건의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은 23일 ‘국민통일방송’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태 소개와 대응방안’ 국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유 원장은 “북한에는 현재 사이버 작전 요원 7개 조직 1,700여명과 기술지원 13개 조직 5,100명 등 20여개 조직에서 모두 7천여 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 공작 부서는 국무위원회 산하 총참모부에 사이버전사 양성과 연구를 위한 ‘지휘자동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공국 204조’는 한국군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시도하고 있다.

‘지휘자동화국’을 통해서 군 지휘통신교란과 사이버방전을 실행하고 있다고 유 원장은 분석했다.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기술정찰국)은 ‘모람봉대학’에서 사이버 공작요원을 양성해 대남정적, 군사정보해킹을 시도하고 사이버 테러를 실행하고 있다.

또 ‘110연구소’와 ‘414연락소’ 등을 통해 전담요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등 공작을 수행하면서 사이버 외화벌이를 병행하고 역정보와 허위정보를 유포해 대남사이버 심리전을 펴고 있다.

유원장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산하에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담하는 ‘6.15 편집사’ 등을 두고 ‘구국전선’과 ‘우리민족끼리’ 등 180여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위터 등을 통한 SNS공작팀도 가동해 여론조작댓글을 통해 허위정보와 사회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문화교류국’에서는 한국내 전락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내 간첩망을 통한 흑색선전과 사이버심리전을 병행하고 사이버 ‘드보크’를 설치해

사이버 간첩교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원장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6대 비대칭전력(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특수전 부대, 사이버전력, 종북세력) 중 가장 ‘저비용-고효율의 비대칭 전력’이 바로 사이버전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21세기 새로운 안보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을 활용한 북한의 안보위협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핵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정찰총국 IT관련 부서인 능라가 캄보디아 등지에 해외 거점 사이버 도박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이버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고 금전 탈취 등 연간 1조원대의 사이버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스위프트 코드를 해킹해 8,100만 달러를 가로챘으며, 2017년에는 위너크라이 랜섬웨어를 통해 약 14만 달러(한화 1억6000만달러)를 탈취했다.

이밖에도 2017년 국내 ATM을 해킹해 1억264만원을 가로챘다.

북한은 2009년 7.7 사이버대란과 2011년 농협전산망 공격, 2013년 3.20 및 6.25 사이버공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5년 서울메트로 해킹, 2016년 한진그룹 해킹, 국방부 데이터방 해킹 등에서 보듯이 다방면에서 사이버 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SNS계정과 사물인터넷(IOT) 대상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

유 원장은 “북한 등 안보위협 세력들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해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강도 높은 사이버공격에 노출됨에 대비해 적극적 관심과 사이버 안보 전략적, 사이버 공학적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평양뉴스 제공

아름다운 퇴장과 출발, 주서택 목사

개척해 15년간 목회 후 조기은퇴 교회 재정 50퍼센트 대사회 환원

교회 담임목사 세습과 연일 터지는 목사들의 실랑이로 뉴스로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사회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맑은 샘물 같은 목회자가 있어 한국 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65세 조기 은퇴를 하면서 교회에서 제 공하는 새 자동차를 극구 사양하고, 은퇴에 따른 퇴직 예우금 2억 원 전액을 교회로 헌금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대 교체를 이룬 목사가 있다.

15년 전 7명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여 출석교인 1천여 명으로 성장한 청주

주님의교회는 개척 첫 달부터 교회재정 5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며 지역사회와 한국 교계에 신선한 감동을 주었던 청주 주님의교회 주서택 목사가 그 장본인이다.

지난 11월 19일 청주주님의교회에서는 주서택 목사 은퇴와 후임 최현석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주서택 목사는 유언 같은 메시지로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 시키는 설교를 하였다.

설교 후에 은퇴에 따른 퇴직 예우금 2억원 전액을 교회에 헌금으로 전달하고

후임 최현석 목사에게 안수를 한 후 주서택 목사가 입었던 성의를 벗어 입혀주고 “여기까지 저의 책임이었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청주주님의교회 담임 목사직을 마무리했다.

15년전 교회를 개척할 때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약속대로 주서택 목사는 그렇게 담임목사직에서 퇴장을 하였다.

“담임목사 세습은 교회를 기업화하고 사유화하려는 인간의 욕심에서 만들어낸 죄악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더 주저앉을 것입니다.” 라고 신을 같은 아픔을 토로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맑은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당이 꼭 화려하고 웅장할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드리기에 불편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도시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하여 재정을 다 쓰는 것은 절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50% 정도는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남은 50%를 가지고 교회 살림을 하면 됩니다” 주서택 목사는 교회의 공공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서택 목사는 C.C.C.간사로 25년간 사역을 하고 2002년 12월 1일 청주의 구 상당교회당을 인수받아 청주주님의교회를 시작했다. 6년 담임목사 임기제도와 65세 정년, 절대 세습 및 친인척 후임불가, 교회재정 5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회개혁에 앞장섰던 청주주님의교회는 지난 15년간 96억 원이 넘는 재정을 구제, 선교, 장학금, 봉사로 교회 밖으로 내보냈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

하기 위하여 사랑의 나눔마켓을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청주주님의교회는 사랑의 나눔마켓을 통해 지금까지 10년간 총 11억원 을 구제사역에 쏟아 부었다.

교회 주위에 위치한 충북대와 창신초, 중앙여고, 청주고와 일신여자 중고등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100여 군데의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 선교단체에 후원해왔다.

금번 후임자 선정은 10개월 전에 24명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해 온 끝에 최종 청주주님의교회 부목사 출신 16명 중 한명이 선정되었다.

“검증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0개월간 외부 지원자 중에서 한분을 선정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교회가 이미 검증한 부목사님들 중에 한분을 청빙위원회에서 선정했고 저도 하나님의 뜻이다 수용했습니다. 제직회에

보고되고 공동의회에서 절대 다수의 지지로 최종 후임목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제2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최현석 목사는 대신교단 군목단장을 지내고, 15년간 군목으로 사역하시고 공군 소령으로 예편한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청주주님의교회는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그것은 원로목사와 후임목사와의 관계를 가장 건강한 모델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저는 일단 교회를 떠나 예수공동체로 들어 갈 것입니다. 후임목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목회에 펼쳐갈 수 있도록 먼 거리에서 지켜주고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퇴임하는 주서택 목사의 뒷모습이 이렇게 덩실덩실 아름다운 수가 없다고 온 교우들은 퇴장하는 주서택 목사를 눈물로 응원했다.

조은식 기자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왕상 19:1-8 사 46:3,4)

제가 2008년 1월 13일 강변교회에서 은퇴한 다음 매년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마다 일년에 두 번씩 여기 와서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강변교회에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주일마다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주로 방문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에게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부탁하는 제목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강변교회에 올 때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준규 목사님에게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동안 강변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이준규 목사님이 강변교회의 사정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

저는 언제부터인가 “어루만져준다”라는 표현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촉 즉 touch 라는 표현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신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안수하시고축복하시니라”(막 10:13,16). 눅 15장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 15:20).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인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너무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접촉의 존재. 안기는 존재, 품기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엄마가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잘 떠나 켈 떠나 밤이나 낮이나 엄마는 아기를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접촉의 존재, 안기는 존재, 품기는 존재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읊니다. 왜 울까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품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운다고 합니다. 엄마 품이 따뜻하고 편안했는데 세상에 나오니까 큰일났구나 하면서 운다고 합니다. 그것을 “출생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원이 빨리 아기를 안아준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간호원이 빨리 안아주면 울음을 그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꼭 안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엄마 품을 떠나면 아기는 읊니다. 결국 사람은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가 없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

루만짐을 받고 안김을 받고 품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하디슨(James Hardison)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접촉의 존재이다. 인간은 접촉 없이는 창조될 수도 없다. 인간은 접촉이 없는 살아 갈수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접촉과 부모의 접촉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다.” 너무나 귀중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란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유명한 그림 중의 하나가 “Creation of men” 즉 “인간의 창조”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담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바다에서 솟아난 게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 “인간의 창조”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담이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의 기운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접촉과 안김의 존재이고 접촉과 안김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르네 스피츠(Spitz)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국립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기 때부터 고아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고 위생시설을 잘 했습니다. 아기들이 불쌍해서 스피츠 박사가 아기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건강하지도 행복하지를 앓았습니다. 건강하기 자주 병이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제일 좋은 시설을 공급해 줬는데 왜 아이들이 병이 들까? 이게 무슨 병일까? 스피츠 의사는 그 병을 “시드는 병” 즉 마라스무스(Marasmus)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스피츠 박사가 그 해 겨울 맥시코에 겨울 휴가를 갔습니다. 거기 고아들을 키우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 보았는데 시설이 좋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잘 공급하지도 못했

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병도 안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사는 부인들이 매일 병원에 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네를 타고 이야기도 해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피츠 박사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이들은 안아줘야 행복하구나! 아! 아이들은 아무리 음식을 잘해주어도 행복하지 않구나! 아! 아이들은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어야 행복하구나!” 그래서 스피츠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유모차에서 피부의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다. 점점 세로들이 죽어갔다. 우유병으로 키우면 병이 많아진다. 가장 강한 접촉은 입과 입술로 엄마의 젖을 빨아 먹는 것이다. 엄마의 젖을 빨아 먹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아이들은 병에 많이 걸린다.” 너무나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회개와 기도와 예배에 정성을 쏟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김을 받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중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28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 4:8 말씀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자들로부터 하여금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정성껏 예배드리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유창한 설교나 멋진 강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울면서 회개와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므로 신자들이 하여금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정성껏 예배드리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중한 삶을 살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부여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살 때 즉 1948년 8월 주일 성수와 예배의 신앙을 몸에 지니고 살고 있어서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캄캄한 밤에 38선을 혼자 뛰어 넘어서 남한으로 온 다음 한 평생 고향과 나그네로 슬픔과

외로움을 몸에 지니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중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 때문이었고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회개와 새벽기도와 주일성수의 예배와 순교 신앙의 유산을 저의 몸에 부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 6.25 전쟁 후 대교로 피난 가서 3년 동안 중학생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 때 한국교회의 무더라고 불리던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성봉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12번은 참석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성봉 목사님으로부터 회개와 은혜 사모와 성경과 전도와 천국 사모의 은혜를 물려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성봉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12번 참석하면서 토요일 새벽마다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이나고 물으시면 “좋은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몇 번 물으신 다음에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나고 묻지도 않고 “너 기도 제목이 좋은 목사님이 되는 거지”라고 하시면서 안수 기도를 해 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안수기도를 12번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주님의 품으로 더욱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듬뿍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중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립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절에는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리시던 김치선 목사님의 사랑과 가르침과 기도를 받으면서 주님께로 더욱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던 새벽기도와 주일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었고 김치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던 매년 연초마다 3월씩 인도하시던 금식기도회에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관악산 부흥회는 물론 대구 주암산 부흥회까지 따라다니면서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주님의 품으로 더욱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듬뿍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중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치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립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중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늘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깃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나이까”(요 13:23-25).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듬뿍 받은 가장 행복한 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변교회에서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린이들을 자주 안아주곤 했습니다. 제가 안아주면 제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레는 태어난 지 여덟 달 때부터 제가 안아주면 1시간 또는 2시간씩 제 품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레와 주은이와 선희와 혜진이와 은정이와 하림이와 예은이와 예나가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대단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습니다.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렘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자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녀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렘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왕상 19:3-5). 환경이 갑자기 적대적으로 바뀌어질 때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도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자기를 죽여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죽시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민 11:15). 엘리야는 이세벨의 적대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극도의 절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렘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시고 또 어루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렘나무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My KIDS

가족들 나누면 재가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Facebook에 공유하세요

가족들 나누면 재가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Facebook에 공유하세요

가족들 나누면 재가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Facebook에 공유하세요

가족들 나누면 재가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Facebook에 공유하세요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MY KIDS 참여방법!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mykids.w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wv.or.kr

3. 월드비전 마이키즈 참여방법!

1.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기 기증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아동의 전지를 후원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이 사는 지역을 후원하여 아동의 전지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3. 전 1회 후원금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선택

1. 후원금에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강, 교육, 의료 및 생활에 혜택을 줍니다.

2. 아동후원은 한 아이의 복지를 위한 도움을 주고 후원금액이 높습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와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왕상 19:5-7). 여기 “어루만지며”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옴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놀라우신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송축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호와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계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시 103:1,8,9).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너무 따뜻하시고 너무 인정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죽겠다고 하며 쓸어들었다가 일어났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뛰어 갔다고 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니라”(왕상19:8).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위로하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신지 모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 손” “하나님의 손 바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불들어주시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불드시로다”(시 37:24).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시 104:28,29).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시 119:73).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전후를 두르시며 안수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찌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 139:5,9,10).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불들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이사야 49장에 보면 엄마가 자기 얘기를 버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사 49:15,16). 하나님의 손은 참으로 신기한 손입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고, 두려워하고 놀랄 때 불을 어주시며 도와주시는 손이고, 어디를 가든지 불들어주시는 손이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의 이름을 손 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사랑의 손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도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 밀어 우리 죄인들을 만져주시고 불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간증적이고 고백적인 설교를 자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제자들을 손으로 만져주셨다는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 이하에 보면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고쳐주시지 않고 문둥병 자도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소경도 그 이외의 모든 병자들도 모두 손으로 만져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마 8:3). “그의 손을 만자시니”(마 8:15).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마 9:29).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눅 4:40).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일일이 손으로 만져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물을 떠다가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자기 손으로 만지시며 씻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13:5). 몸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고 발도 만져 주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수가 없어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대시며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 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계 1:17).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과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손, 피가 흐르는 구속의 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손, 지옥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여시는 손, 그 손으로 우리들을 만져주시면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어 집니다. 우리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회복됩니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염려 두려움의 삶이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중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시 31:15).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은 대단한 손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도 사도 마태처럼 사도 누가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병자들을 만져주시면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간증적이고 고백적인 설교를 자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을 문둥이로 치시는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배신자들을 품에 안아주시므로 배신자들이 모두 울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

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줄 아는 고로 당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물던 자러라”(요 21:1-20).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주님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배신자들을 책망하시는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말씀들로 배신자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므로 배신자들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모두 회개와 헌신과 순교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6일 아침 신앙의 동료 몇 분들과 함께 모여 조찬을 하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저의 한 평생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저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신앙의 선배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감관주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박운선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있던 최익식 목사님이 제가 11살 때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부모와 고향을 떠나 한 평생 고아와 나그네로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귀중한 신앙의 선배님들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을 떠난 어린 시절부터 한 평생 귀중한 신앙의 선배님들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위

로”를 쏟아 부음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위로하심”이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귀중한 신앙의 선배님들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쏟아 부음 받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만큼 순교하신 저의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과 저의 어머니 류춘택 사모님으로부터 순수한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쏟아 부음을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만큼 한국교회와 무디라고 불리시던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으로부터 친밀한 “사랑과 은혜와 기도과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쏟아 부음을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만큼 한경직 목사님과 박운선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들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기도과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쏟아 부음을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운선 목사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면서 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가슴에 지니고 계시던 안타까운 생각들을 자주자주 저에게 토로하신곤 했습니다. 저는 정진경 목사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지냈는데 정진경 목사님이야말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좋아하시면서 모든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방지일 목사님과도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지냈는데 방지일 목사님에서도 저를 너무나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면서 가슴에 지니고 계시던 안타까운 생각들을 자주자주 저에게 토로하신곤 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귀중한 신앙의 선배님들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쏟아 부음 받으며 살면서 부족한 이 없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지만 강변교회에서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펴느라 애를 썼고,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과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받으면서 행복한 목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변교회 목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부족한 죄인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고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은 합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는 수원 옥토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고 그 전 주일에는 중국 하르빈 아성 신흥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마음과 몸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합니다. 사람은 어루만짐을 받아야 하는 “접촉”의 존재들이고 안아움을 받아야 하는 “안김”의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안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한 없는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는 날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수 십 번씩 계속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죄인을 계속해서 심부름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사람은 어머님의 품이 그림고 하나님의 품이 그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면 넘어지는 것도 겁이 안 나고, 병드는 것도 겁이 안 나고, 실패하는 것도 겁이 안 나고, 죽는 것도 겁이 안 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저는 사46장 3절 4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읽으므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아름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사 46:3,4).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라고 중얼거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병들 때에도, 속상할 때에도,

지칠 때에도, 죽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라고 중얼거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서 하루 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품에 편히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이동규 칼럼] 대한민국은 통일을 원하는가?



영광한인교회 이동규 목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노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통일의 노래이다. 어려서부터 거의 매일같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자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은 되지 않고, 오직 남북의 관계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틀려지고, 통일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다만 기독교계에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종교지도자와 종교계단체들이며 최근에는 통일코리아협동조합이라는 단체까지 세워졌다. 과연 어려서부터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어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어려서부터 그냥 가르치는 대로 통일일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렀던 그 통일이 이루어 질것인가? 대한민국정부는 진정 통일을 원하는가?

1.대한민국은 통일을 준비하였나?

대한민국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박근혜 정부에 말이 나왔었다. 그래서 통일통장을 만들어 통일을 위한 적금을 부어서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전에는 김대중 정권에서 통일이 되면 연방정부체제를 하겠다는 말이 나왔었다. 그 이전이나 이후에 어떠한 것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정부는 통일을 준비했는가? 마쳤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정부의 현황을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거울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다. 독일의 통일이 가져다주는 문제와 좋은 점 양으로 내다보는 일에 대하여 먼저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역대에 있었던 정부 정망 통일을 원하였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왜 그토록 수많은 돈을 북한에다가 퍼주었는가? 그 돈들은 국민이 피눈물 흘리며 고생하고 번 돈으로, 세금을 낸 돈으로 아무 대가도 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북한에다가 퍼주었다. 어느 누가 국민에게 묻고 의논하고 북한에다가 전달하였나? 그런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에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과

연 통일을 위해서 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북한이 저지르고 있으며, 그 돈들이 북한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은 왜 북한에 돈을 쓰는가? 한국국민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1) 통일이 되면 땅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남한은 사유제이지만 북한의 땅은 국유재산이다. 한마디로 김 씨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그 땅은 북한주민들에게 대대로 소유하도록 나누어 줄 것인가? 만약 남북이 나누어지기 전에 북한쪽에 살던 사람들이 내 땅이라 들고 나오면 어찌 할 것인가? 이것이 독일의 문제와 틀린 것이다.

2) 국가 체제도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이 독립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살고 있다. 통일이 되면 어떠한 정부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흡수통일로 무조건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름을 바꾸어 다른 나라로 세워져서 나갈 것인가?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의논하고, 미리 결정하였나? 아니라고 본다. 김 씨 일가가 무너진 다 해도 그 아랫사람들이 정치를 잡고 조건부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연방정부로 할 것인가? 김대중 정권이 수도 없이 말하고 노무현 정권이 말하고 했던 것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각도마다 미국처럼 주로 나누어 한 나라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러한 연방정부를 할 것인가?

3) 신분증문제해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전에 북한쪽에 살던 사람들에게 대한 역대 대통령들이 신분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 박정희 정권에서 가 호적을 만들어주어 북쪽에 살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가 호적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었다. 신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4) 언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북한사람들과 남한이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언어가 많이 틀려서 혼동을 준다. 그들에게 언어의 교육을 시켜야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5) 문화의 차이이다. 같은 나라에서도 세대가 문화적인 차이로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자유문화와 독재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면 동질감을 가질 수가 있나? 없다 그러면 이질감을 많이 느낄 것이고, 함께 어울림이라는 것이 한동안 힘들어 질것이다. 거기에 그들은 언제나 전쟁준비를 한 상태이기에 그들의 마음이 강박한 마음일 것

이다. 그들을 어떻게 믿고 반가이 맞이하고 함께 살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는가?

6) 화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화폐는 엄청난 수준이하여 불과하다. 화폐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 정권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어떻게 할지 구상은 해보았는가? 통일이 되면 당장 화폐의 혼란은 오기 마련이다.

7) 북한사람들의 의식주와 직업의 해결이다.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적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과 한나라의 붕괴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한마디로 도둑들이 범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8) 중국과의 관계이다. 현재 북한 땅에 있는 백두산의 소유가 내가 알기로는 중국에 일부 넘어갔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이미 북한 땅은 폐허가 된 곳이 많고, 북한에 있는 산들도 폐허가 된 곳이 많다. 거기에 핵실험을 계속하기에 땅들의 오염이 엄청 심각할 텐데 그것의 해결방법은 있는가?

9) 대한민국 대통령선출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보아도 미국처럼 그 나라에서 태어난 자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없다. 한국은 어느 누구나 귀화한사람이라면 다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슬람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귀화해서 대통령이 되어 자기가 모든 것을 휘어잡을 수가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권이다.

2. 국민들은 통일 준비를 하였는가?

아주 어려서부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어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통일 정말 대한민국국민은 통일을 원하는가?

1) 마음에 준비가 되었나? 북한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좋다고 물밀 듯이 내려온다면 그들을 따뜻하게 내 자식처럼 받아줄 마음이 있는가? 나 먹고살기도 힘든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든 때, 과연 그러한 마음이 가능할까?

2) 그들에게 내 직장이 빼앗겨도 괜찮은가? 그들 때문에 더 힘든 상황에서 직장마저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악화되어 나 자신

이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내 자식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정권에서 전쟁만 준비하고, 고통 받으며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 시간이 흐른 후 내 자식과 결혼하고 나와 사돈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

3. 각 단체들이나 기업들은 준비가 되었나?

내가 알기로는 준비가 되어있는 곳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냥 말로만 인권존중, 통일을 부르 짓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얼마만큼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한번 조목조목 노트에 적으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아라.

대한민국이 북한의 요구와 북한주민에 대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나? 현재는 not yet 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하도 많이 통일에 대하여 외치기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정말 통일을 원하는가? 말로만의 통일이 아니라 완전 내 곁에서 나와 동거동락 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는가?

1) 어느 단체에서는 성경을 들먹이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북한이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받아주라고 한다. 북한에 당해 보지 않은 자들은 그런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한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도 북한이 생각하면 치를 떨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남한에 수도 없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죽이고 한 것을 왜 잊어버리는가? 같은 동족이라서 말하지 말라고? 같은 동족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만 미운 것이 아니라 북한도 일본 못지 않은 악행을 저질렀다. 그것을 모르는가?

마태복음 5장23-26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예를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를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톨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바로 이 소중한 말씀이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와 본인과는 해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웃과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탈북 했다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돈만 받아먹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다

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다고 들었다. 돈 받아먹고 미국 와서 한국 육하는 사례들도 이곳 미국에서 많이 보았다. 어찌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도록 한국정부는 소홀할까? 일부 북한사람들은 잘못된 사상과 습성이 틀어 고쳐지질 않는다.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가 돈을 주는 줄 안다. 어느 나라에서 그들에게 돈을 주는가? 돈 주는 나라를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3)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현재 큰 사건 두 가지를 하고 있다. 첫째는 친일파를 때려잡는 것이다. 거기에 주도가 된 박근혜와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포함해서이다. 그런데 왜 수많은 정권이 하지 못하였는가?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친일파는 때려잡으면서 왜 친북파는 때려잡지를 못하나? 왜 친미는 때려잡지 못하고, 왜 친러는 때려잡지 못하고 친중은 때려잡지 못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들이나 지도자들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공정성을 잃고 자기 쪽으로만 치우치게 일을 하고, 사람들을 때려잡지 말라.

두 번째로는 형평성을 잃어버린 적폐청산이다. 박근혜와 이명박만 잘못하였는가? 아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정권부터 오늘날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도 문제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기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감싸는 듯 하다. 포함에 지진의 문제, 이번에 북한군 남한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 문정권의 군부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대한민국건 국부터 모든 것을 하라. 그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적폐청산인가. 나 자신부터 깨끗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럽고 추잡하면서 적폐청산을 한다면 지나가던 개도 비웃을 것이다.

만약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주장한 것과 같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여 연방정부를 수립한다면 과연 미국처럼 한 나라로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연방정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해야 할 것이다.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	-----------	-----------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	--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사주 형제 읽는 철학동화—읽어보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제,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
"아무려, 여전히 쓸 만해."

바람이, 오래되고, 물들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영웅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때 디자이너·보자기 마이스터 이효제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39-7888 **이마주**